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석준* · 김경민**

Differences among Korean-Chinese Ethnic Clusters in Seoul

Sukjoon Lee* · Kyung-min Kim**

요약 :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최대 외국인 집단으로, 상당수가 서울에 거처를 두고 조선족 밀집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이들 밀집지는 우범지역으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양꼬치거리의 부각 등 일부 조선족 밀집지의 성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집중하여 초기 조선족 중심 밀집지인 구로구 가리봉동과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영등포구 대림2동, 그리고 조선족 양꼬치 거리가 형성된 광진구 자양4동을 중심으로 각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밀집지의 입지 원인, 밀집지 내 조선족 대상 상업시설의 운영주체 및 개업에 필요한 자본의 형성과정, 조선족 밀집지에서의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특성이 공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족 밀집지가 조성된 도심 내 쇠퇴지역에서 조선족에 의한 지역재생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이는 특성이다. 반면에, 조선족 인구의 밀도, 주거지 분포패턴 및 주거의 질, 조선족 중심 상업시설의 업종구성 비율, 상업시설의 성장 시기 및 규모, 한국인 고객의 비중, 조선족 상인들의 경쟁의식 등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차이는 현재 각 조선족 밀집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특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조선족 밀집지의 가능성이 어떻게 발현되거나 그렇지 못한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서울의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도시계획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조선족, 조선족 밀집지, 외국인 밀집지, 다문화, 노동이주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among Korean-Chinese ethnic clusters. Distinct characteristics are shown to vary in major clusters such as Garibong-dong (Guro), Derim-dong(Yeongdeungpo) and Jayang-dong(Gwangji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patial features of residents, various academic approach were taken such as literature review, GIS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Three districts have different patterns in population density, and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quality of Korean-Chinese. In addition, it is noteworthily found in commercial traits that each cluster has contrasting growth rat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Chinese cultural) retail shops and ratio of Korean customers to other. However, all of these clusters are shown to follow almost similar process in formation of residentia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retail shops. Moreover, Korean-Chinese small business owners have a role of maintaining unique cultural environments in each community. These findings suggest perspective of transition on ethnic clusters in Seoul and implications on how urban planning policy can deal with multi-cultural community.
Key Words : Korean-Chinese, ethnic cluster, multicultural commercial district, labor migratio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E-mail: kkim2@snu.ac.kr, Tel: 02-880-9517)

Ⅰ. 서론

조선족의 국내 유입 및 정착은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어, 2000년부터는 국내 체류외국인 중 최대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조선족의 절반가량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1] 특히,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는 조선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뚜렷한 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울의 조선족 밀집지는 흔히 우범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쳐져 왔다. 또한 도시계획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낙후지역으로서 재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 밀집지에서는 특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가리봉동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족 거주지가 영등포구 대림동과 관악구 일대로 확장되는 한편, 광진구 자양4동의 '양꼬치 거리(중국음식문화거리)'가 부각되고 있다. 양꼬치구이는 대표적인 조선족 문화의 음식으로 광진구 자양4동에는 동일로 18길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조선족 음식점들이 모여 '건대입구 양꼬치 거리'라 불리고 있으며, 2011년에는 광진구에서 이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였다. 이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색 문화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가리봉동 일대 조선족 밀집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토(ghetto)화된 성격(한성미 · 임승빈, 2009; 박세훈 외, 2009)등과 비교해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족 문화를 바탕을 한 이색적인 상권의 부각이 조선족의 밀집도가 현격하게 높은 서울 서남권이 아닌 광진구에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조선족 밀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게토화', '이색거리화'와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조선족 밀집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 특성차이와 관련된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족의 초기 밀집지인 구로구 가리봉동, 현재 최대 인구 밀집지인 영등포구 대림2동, 양꼬치거리가 조성된 광진구 자양4동을 연구 대상지로 삼아 비교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외국인 밀집지의 개념

Pamuk(2004)은 외국인 밀집지(ethnic cluster)를 '공간상에서 이민자 그룹의 지리적 집중을 표현하는 포괄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을 말한다(이갑호, 2007).[2]

외국인 밀집지의 공간적 범주에 있어서는 지역

1) 2012 기준, 32만 명의 국내 등록 한국계 중국인 중 14만 명(약 44%)이 서울 거주(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박세훈 외(2009)에서 재인용

커뮤니티 지식과 민족경제활동으로부터 민족근린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공간적 인접성 지수를 만들어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인접지와의 외국인 주거비율 차이를 통해 정의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여 보편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amuk, 2004; Loga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각 밀집지 간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어,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행정동을 조선족 밀집지의 경계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외국인 밀집지의 역할

외국인 밀집지의 형성은 세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Sassen(1994)은 '세계도시론(global city theory)'을 설명하면서, 대도시의 성장과 노동구조의 변화로 이민자 집단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3] Massey et al.(1993)은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이러한 국제이주를 초기과정과 영속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을 경제이론과 사회이론으로 설명한다. 전통적인 이주이론에서 Borjas(1989)는 송출지역의 압출요인과 수용지역 흡입요인 조합에 의해 국제적인 이주가 발생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국제 노동이주는 상대적으로 고차서비스에 특화되어 저차서비스업(건설, 건물청소, 택배 등)에 종사할 외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도시에서 저임금의 소수민족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도시하위계층(urban underclass)'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낸다(Hamnet, 1994).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외국인 밀집지 형성의 사회적 원인으로 작용한다(Savage and Warde, 1993). Castles and Miller (2009)도 외국인들이 출신지역별, 인종별로 모여 밀집지를 형성하는 경향에 사회적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Faist(2006)는 사회적 이주네트워크의 체계화 및 조직화에 의한 이러한 공간적 집중을 '초국가적 사회 공간(trans- national social space)'으로 규정해 이주민에게 유리한 사회자본을 제공하고, 이주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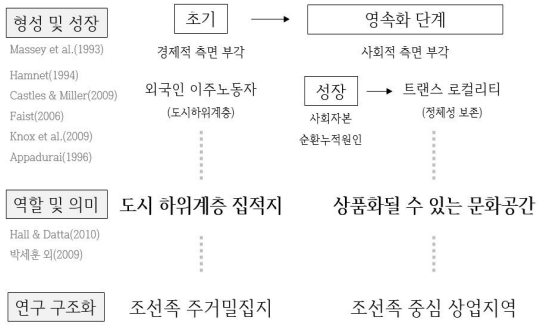
더불어 외국인 밀집지의 역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정체성 보존'으로 Knox and Pinch(2009)는 외국인 주거밀집 클러스터가 이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방어와 내부적 상호 지원기능을 담당하며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여 주류사회에 저항하는 공간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 Appadurai(1996)는 이러한 정체성 보존 역할에 집중하여,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뛰어 넘어서 존재하는 지역성의 변화된 속성을 의미하는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 라는 개념을 제시한다(장근수 외, 2003).

트랜스로컬리티는 외국인 밀집지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문화권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음식점, 종교시설 등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러한 성격은 밀집지가 방어적인 역할을 벗어나 주류사회와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all and Datta (2010)는 영국 런던의 외국인 거리 간판 분석을 통해, 모국어 간판을 사용하여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고객으로서의 영국인을 중요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고유문화를 매개로 한 주류문화와의 소통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 박세훈 외(2009)도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외국인 밀집지 특성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앞선 연구들에서 보인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의 특성에 더

3) 남기범 외(역)(1998)

한 트랜스로컬리티의 존재를 역설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외국인 밀집지의 도시 내에서의 역할을 형성 및 성장과정과 연관지어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는 도시하위계층 집적지라는 특성 외에도,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주류사회와 소통하는 다양성의 발현지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특성은 밀집지의 성장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각각 주거밀집지, 상업지역이라는 공간이용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지를 '조선족 주거밀집지'와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그들이 어떠한 성장과정 중인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 이론적 배경 고찰 및 연구 구조화

Ⅲ. 연구방법

조선족 중심 주거・상업지역의 형성 및 성장측면에서 비교가능한 특성들을 추려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거측면에서는 조선족들의 입지시기 및 배경, 거주자 특성차이, 인구밀도 및 분포특성, 주거환경을 비교 항목으로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 형성 측면에서는 업종구성, 성장시기 및 규모, 운영주체 및 형성배경을 살폈으며, 주류사회와의 소통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고객의 방문여부 및 비율, 상업지역 형성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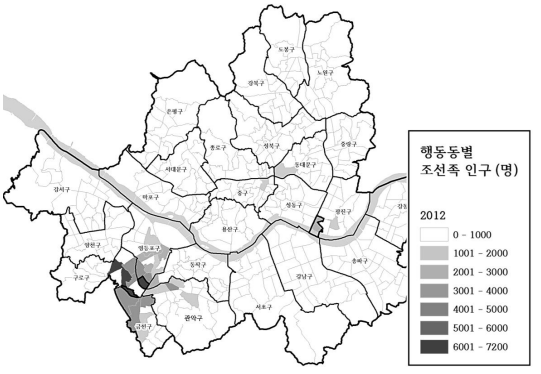
이를 위해 문헌자료 및 통계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공간분석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였다. 업종구성과 분포 등 추가적인 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에 더하여 물리적 현상의 발현 이면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단계를 진행한 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의 '조선족 밀집지 거주 조선족들'과 '해당지역 내 조선족 대상 상업시설 운영자 및 관련자들', '해당지역 부동산 관계자' 그리고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교회'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Ⅳ.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

1. 조선족의 국내 유입 및 정착

조선족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노동운동 확산과 3D업종 기피현상, 청소년 인구 감소와 진학률 상승, 농촌으로부터의 인력수급한계 등의 상황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상승과 함께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인력난을 야기했다(윤황・김해란, 2011; 이진영・박우, 2009). 이러한 상황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쇠퇴, 서비스업 대두 등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저개발국으로부터의 노동이주를 발생시켰다.

한편,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연변조선족의 이동성이 증대된 시기가 국내의 노동수요 발생과 맞물리면서 조선족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었다(윤황・김해란, 2011). 한국은 조선족의 노동이주선택지 중 임금수준이 높고, 언어가 통하며, 친족 네트워크가 남은 지역으로 선호되었다. 또한 이같은 선호원인은 외모적 유사성 등과 함께 국내 노동시장에서 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조선족들의 비교우위로 작용했다.[4)]



〈그림 2〉 서울시 행정동별 조선족(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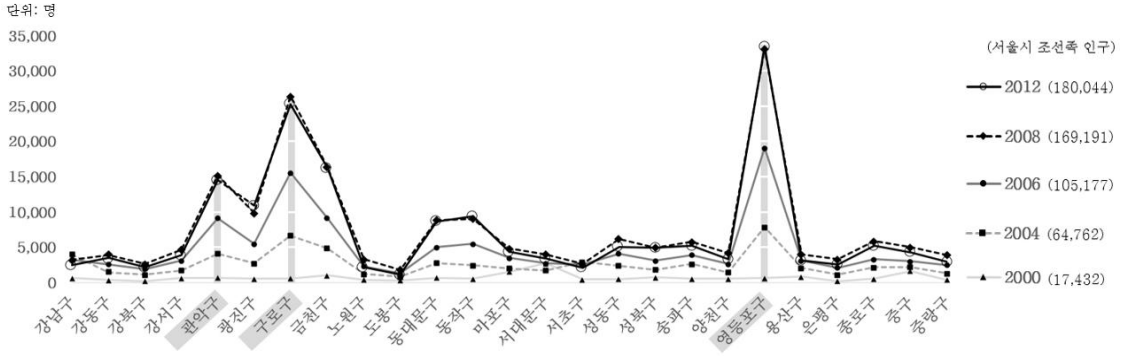
2. 조선족의 공간적 집중

2000년대 이후, 서울 내 조선족 분포의 공간적 편중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시간에 따른 조선족 인구의 변화를 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공간적으로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의 조선족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이들 지역의 조선족인구 변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급격한 유입시기 인구증가가 지리상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후 유입이 안정화된 시기에는 지역적인 편중이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의 조선족 인구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으로부터, 현재 서울의 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는 단계를 지나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3〉참조).

Ⅴ. 조선족 주거밀집지로서의 특성

1. 조선족 정착지 입지요인

조선족의 정착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일자리로, 초기 유입 조선족들은



〈그림 3〉 각 구별 등록 조선족 인구수 변화

4) 전체 등록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은 1990년대 말 20%정도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이후부터는 조선족(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집계가 타 중국인과 따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다.

그들에게 적합한 노동수요가 나타나는 지역과 가깝거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여성의 경우 음식점에서 일을 하거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비중이 높다(이진영 외, 2008). 따라서 조선족들의 입지는 이러한 업종의 노동수요를 따라 일자리 인근 또는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이들은 노동이주자로서 고강도의 노동을 통해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입국했기 때문에, 주거선택에 있어서는 주거의 질보다 주거비의 저렴함이 주요 입지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살펴본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표 1>). 가리봉동은 구로공단에 인접하여 제조업 노동수요가 존재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구로공단 1단지의 첨단화계획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건설 등 건설인력 수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산디지털역과 남구로역 지하철 1, 7호선을 통해 경기 서남부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조선족의 일자리 수급이 용이한 지역이다. 주거에 있어서는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던 '쪽방촌'이 남아있어 저렴한 주거선택이 가능했다. 현장조사 결과 저렴한 쪽방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림2동의 경우, 가리봉동과 마찬가지로 구로공단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 제조업 노동수요가 있었으며, 대림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여 일자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저층주거지의 반지하 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확보가 가능했다.[5] 자양4동은 가리봉동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성수공단을 중심으로 제조업 노동수요가 존재했으며, 건대입구역과 뚝섬유원지역 2호선과 7호선을 통해 강남 및 서울 동북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일자리접근성이 좋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비롯한 도로교통을 통해 분당과 쉽게 연결된다는 점 또한 이 지역의 일자리 접근성에 일조한다. 주거의 경우 성수동 공단의 쇠퇴에 따라 저렴한 주거의 공급이 늘어나 조선족 밀집에 영향을 미쳤다.[6]

2. 조선족 거주자의 성격 및 계층 차이

일자리와 저렴주거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세 지역 입지요인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반면, 각 지역

<표 1> 조선족 노동이주자 정착지 입지요인

입지요인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
일자리	교통 접근성	가산디지털단지역(1, 7) 남구로역(7)	대림역(2, 7) 구로디지털단지역(2)	건대입구역(2, 7) 뚝섬유원지역(7)
	접근 용이한 일자리	구로공단, 강남, 안산, 안양	강남	성수공단, 강남, 분당 (90년대 초 분당 개발)
저렴한 주거		쪽방촌(벌집) (구로공단 노동자 유출)	빌라촌 반지하	빌라촌 반지하 (성수동 공단 인구유출)

5) 저렴한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세 22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조건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현장조사 2013.10).

6) 저렴한 반지하가 보증금 300~500만원에 월세 30만 원대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평수나 다른 조건이 양호하여 2, 3인 가족단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다(현장조사 2013.10).

의 조선족 거주자들 사이에는 성격 및 계층차이가 존재한다. 방성훈・김수현(2012)은 조선족 밀집지의 분화 관점에서 가리봉동과 자양동의 체류 조선족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지역 조선족 거주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가리봉동의 경우 초기 정착지로 단신의 단기체류자가 주를 이루는 반면, 자양동의 경우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착지로 주류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입에 있어서도 자양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대림동의 경우 가리봉동에서 확장된 경우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조선족의 이동이 있었다. 이같은 차이는 지역 간 주거비 수준과 주거환경의 차이와도 관련을 보이는 결과이며, 가리봉동이 자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하위계층 집적지적 성격이 더 강함을 유추할 수 있다.

3. 배후 인구밀도

〈표 2〉의 조선족 밀집지가 속한 각 행정동의 조선족의 인구밀도를 보면,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 모두 서울시의 평균 조선족 인구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리봉동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2만여 명 중 6천여 명이 조선족으로 전체 인구의 30.0%가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림2동의 경우 조선족의 비율은 28.2%로 가리봉동에 비해 낮지만 등록조선족의 수는 7천여 명으로 가리봉동보다도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자양4동의 경우는 조선족의 수나 한국인 대비 비율에 있어서 가리봉동과 대림2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 조선족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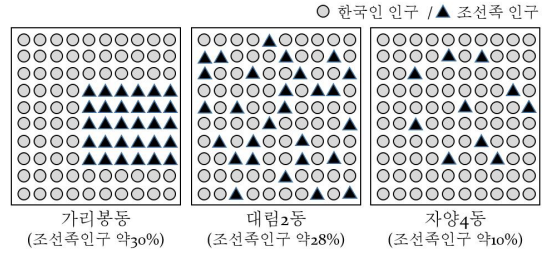
(단위: 명, %)

시기	지역	인구	조선족(중국인)	비율
2000	서울시	10,373,234	17,432	0.2%
	가리봉동	18,690	(92)	0.5%
	대림2동	24,343	(89)	0.4%
	자양4동	41,775	(191)	0.5%
2006	서울시	10,356,202	105,177	1.0%
	가리봉동	22,733	4,134	18.2%
	대림2동	24,335	4,910	20.2%
	자양4동	26,496	1,618	6.1%
2012	서울시	10,442,426	140,893	1.3%
	가리봉동	20,359	6,111	30.0%
	대림2동	25,417	7,176	28.2%
	자양4동	28,858	2,936	10.2%

출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4. 배후인구의 분포 및 주거의 질

각 대상지의 조선족 인구에 있어서 인구의 규모와 비율은 가리봉동과 대림2동이 유사하고 자양4동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인구의 분포패턴과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림2동과 자양4동의 유사한 특성과 구별되어 가리봉동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그림 4〉 참조)).



〈그림 4〉 인구구성 및 분포특성 다이어그램

가리봉동에는 소위 '벌집'이라 불리는 1970년대 공단노동자들의 주거가 상당수 남아있어, 조선족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벌집의 주거여건은 열악하며, 현재 대부분의 이용자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다. 때문에 가리봉동의 조선족

의 주거지는 건물단위에서 한국인과 분리되어 있으며, 벌집들은 우마길 인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공간적으로도 한국인과 분리되어 지역적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림2동과 자양4동의 조선족들은 주로 한국인 주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반지하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건물단위에서도 한국인 집주인과 지상 층의 한국인 세입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반지하와 옥탑방에서 조선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과 조선족의 혼재는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반지하와 같은 임대료 차이가 나는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형태가 많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림2동과 자양4동의 이러한 저층주택은 고르게 분포하여 조선족 주거의 공간적인 편중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Ⅵ.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으로서의 특성

1. 업종구성 비율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로는 조선족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과 중국식품을 취급하는 식료품점,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환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조선족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노래방과 PC방, 주점, 다방과 같은 여가 및 유흥시설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옷과 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미용실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도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로써 조선족 밀집지에서 흔히 관찰된다.[7)]

각 대상지역은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의 수와 그 구성비율면에서 차이를 보인다(〈표 3〉 참조). 우선, 조선족 인구대비 관련 상점의 수는 대림2동

〈표 3〉 조선족 대상 상점 및 시설 수

(단위 : 개, %)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	
	점포 수	비율	점포 수	비율	점포 수	비율
총 수 (/조선족 100명)	150(2.5)	100%	304(4.2)	100%	66(2.3)	100%
음식점 (/조선족 100명)	66(1.2)	**44%**	144(2.1)	**47%**	40(1.4)	**61%**
식료품점	6	4%	16	5%	5	8%
직업소개소	13	9%	21	**7%**	2	3%
여행사 및 환전소	12	8%	43	**14%**	9	14%
행정사*	7	5%	20	**7%**	1	2%
화물, 무역	3	2%	10	3%	1	2%
주점 및 다방	9	**6%**	8	3%	2	3%
노래방	19	**13%**	8	3%	1	2%
미용실	4	3%	5	2%	1	2%
기타소매점	3	2%	10	3%	0	0%
종교시설	2	1%	4	1%	2	3%
기타	6	4%	15	5%	2	3%

* :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 관계 서류작성, 제출대행, 번역, 신고, 신청 등을 대행하고 상담,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의미

출처 : 현장조사자료(2013.08 기준)

7) 조선족 중심 상업시설들은 2013년 8월과 10월 사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들은 간판을 한자로 제작하였거나, 업소이름에 중국지명을 사용하는 등 조선족 문화를 내포하고 조선족의 이용이 중심이 되는 경우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리봉동, 자양4동 순으로 나타났다. 대림2동의 경우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조선족 인구대비 업종수가 월등히 많아 서울의 조선족 사회에서 핵심적인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식점에 있어서는 가리봉동은 1.2개, 대림2동은 2.1개, 자양4동은 1.4개로 나타났다. 대림2동과 자양4동에 있어서 이같은 현황은 국내 인구 100명당 음식점 수가 1.2개 수준(서울시 1.1개)[8]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에 조선족들이 이용하는 한국인 음식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각 지역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기능하는 상권이거나 한국인 고객들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각 대상지의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의 업종구성 비율에서는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타 업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상업지역의 성격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가리봉동의 경우 노래방과 주점, 다방 등 '유흥'과 관련된 업종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리봉동에는 자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은 개인 단위의 단기체류자가 많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단순노무를 비롯한 수입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고, 한국사회 적응정도가 낮은 경향이 보인다(방성훈 · 김수현, 2012). 이러한 가리봉동 조선족의 특성상 조선족 문화에 특정된 노래방과 주점 등을 통한 여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림2동의 경우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 일자리나 행정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시설의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도 타 지역들과 구분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림2동은 중국공상은행의 서울 3개 지점 중 한 곳과 중국은행의 서울 2개 지점 중 한 곳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로써 대림2동은 명실상부한 서울시 조선족 사회의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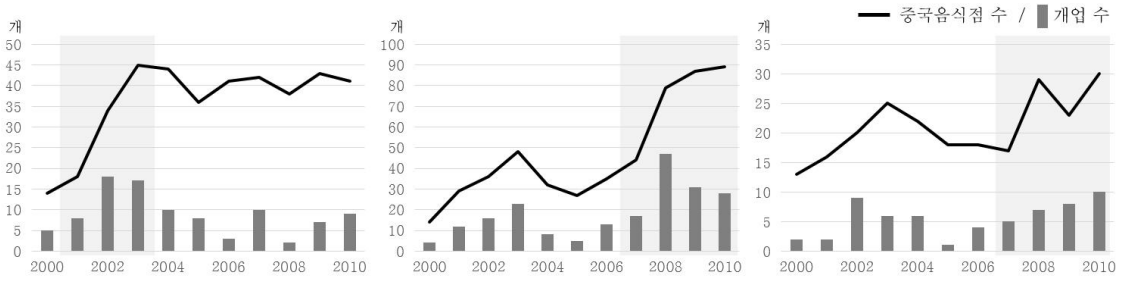
자양4동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음식점에 특화되어 상업지역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점이 전체 업종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용실은 한 곳에 그쳤고, 조선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일자리나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도 행정사와 무역과 같은 전문적인 형태보다는 여행사와 환전소, 직업소개소가 주를 이루어 대림동의 중심적인 역할과는 차이를 보인다.

2. 상업지역의 성장시기 및 규모

조선족 밀집지의 시기에 따른 규모 및 성장은 중국음식점[9]의 증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음식점은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업태 중 하나이고,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조선족 중심 상권을

8) 음식점 및 주점업은 전국 607,180개, 서울 112,458개임(2011,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9) 전국사업체 조사: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8차 산업분류체계에서 중국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H55212)으로 분류된 업체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9차 산업분류체계에서 중식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I56112)으로 분류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림 5〉 중국음식점 수 증감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10]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는 중국음식점은 대부분 조선족을 대상으로 조선족 문화권의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이었으며 주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중국음식점의 수는 매우 한정적인 수준이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중국음식점을 보면, 세 지역 모두에서 그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리봉동의 경우 약 2.9배, 대림2동의 경우 약 6.4배, 자양4동의 경우 약 2.3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서울시의 중국음식점 수가 약 23% 감소한 것과 비교해 해당지역 조선족 상업지역의 성장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결과이다. 공통적 증가 이면에 나타난 지역에 따른 상이한 증감 패턴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의 성장시기 및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가리봉동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3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로는 증가 추세가 사라지고 그 규모가 약간 감소한 후 유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 사이 개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후로는 개업 수가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림2동의 경우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2005년 이후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점 점포의 경우 2005년부터 그 수가 늘어나 2008년에는 전년도 점포수에 육박하는 47개 업체가 새로 개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초기 음식점 수와 조선족 인구규모 및 밀도,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앞서 설명된 가리봉동에서 대림2동으로의 조선족 밀집지 이동이 주거뿐 아니라 상업시설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자양4동의 중국음식점 수 증감은 가리봉동보다 대림2동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며 2000년대 후반의 상권 성장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대림2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며, 업체 수의 증가 시점도 2007년 이후로 대림2동에 비해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으로는 2005년 이후 개업하는 점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9년 음식점 수가 감소하는 등 부침을 겪었으나 개업하는 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0년과 2013년 사이 10여 개의

10) 관련 통계는 조선족 관련 음식점 중 메뉴구성에 따라 중국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밀집지 형성 초기의 가리봉동에서와 같이 해당 음식점이 무허가로 운영되었던 경우 등이 집계되지 못했다.

음식점이 추가되어 그 성장이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3. 조선족 대상 상업시설 운영주체 및 자본형성

조선족 밀집지에서 중국풍 음식점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조선족으로, 조선족 수요에 대응하는 국내 자본에 의한 상권 형성을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운영주체인 조선족의 경우, 재외동포 비자(F4) 등을 가진 중국국적자와 국적회복, 일반귀화, 혼인귀화 등을 통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자[11]가 모두 존재하였다. 개업과정에서 조선족의 국적으로 인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오히려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조선족 중심 상업시설에 대한 한국인의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상점 운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초기에 입국하여 장기간 노동이주를 지속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한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단순노무직과 도시하부서비스 분야에서 다년간 일하며, 자금을 모으고 경험을 축적한 후 개인 사업으로 음식점을 개업한 사례의 비중이 높았다.

음식점 개업을 위한 조선족의 자본형성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대체로 이주노동을 통해 축적한 것에 더하여, 조선족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혼인귀화자 여성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인을 통해 빌린 돈을 모아 가게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지인들은 주로 가족 또는 한국에서 이주 노동을 함께한 동향사람이었다. 가족이나 동향친구들에게 빌린 자금 역시 대부분 노동이주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 고객구성(한국고객의 방문 비율)

조선족 중심 상업시설 가운데 한국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이 거의 유일하다.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은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조선족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용객이 조선족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접근이 심리적으로 제한되고 있다.[13] 때문에 서울의 조선족 밀집지에 있어서 공간적 동화는 주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 음식점의 주 고객층은 조선족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공간동화이론의 관점에서 주류사회와의 동화를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조선족 관련 상점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조선족 음식점들이 언론과 웹기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국문화의 '맛집'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이곳을 찾는 한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조선족 음식문화특화거리인 자양4동 '양꼬치거리'의 경우 현재 한국인 고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

11) 이 경우 국적상 한국인이지만 조선족 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하여 한국 주류사회보다는 조선족 문화권 내에 존재하는 경향이 강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조선족 밀집지와 관련된 조선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12) 외국인도 외국인 투자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제 및 제한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13) 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양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접근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표 4〉 조선족 상점의 한국인고객 비중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			
응답자 (업종)	응답자 (연령/성별/국적)	한국인 고객비중	증감 추세	응답자 (업종)	응답자 (연령/성별/국적)	한국인 고객비중	증감 추세
식료품점	80대/남/귀화	5%미만	-	음식점(양꼬치)	60대/남/중국	90%	↑
식료품점	50대/남/귀화	10%	-	음식점(양꼬치)	40대/여/중국	80%	↑
음식점(일반식사)	50대/여/중국	5%미만	-	음식점(양꼬치)	50대/남/귀화	80%	↑
음식점(양꼬치)	50대/여/중국	20%	↑	음식점(개고기전골)	40대/남/중국	20%	-
음식점(양꼬치)	50대/남/중국	20%	↑	음식점(훠궈)	50대/남/중국	40%	↑
음식점(양다리구이)	50대/남/귀화	10%	↑	음식점(양꼬치)	50대/여/중국	80%	↑
음식점(닭날개구이)	30대/여/귀화	10%	-				

자료 : 상점 운영자 인터뷰(2013.10)

지역적으로는 자양4동, 대림2동, 가리봉동의 순으로 한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리봉동의 경우에는 상점가에 한국인 유동객이 많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에 대한 한국인 이용자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양4동의 사례와 대조적으로 주변지역 및 외부에서 이 지역 음식점을 찾는 한국인들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조선족 관련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조선족의 거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접근도 저조한 상태이다.

반면에 자양4동에서는 한국인의 조선족 음식점 이용이 일반적이다. 해당지역 조선족 음식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몇몇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 경우 고객의 80%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한국인들의 이용이 많은 이들 업소에는 평일 저녁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음식점을 중심으로 상업가로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고객들이 조선족 음식점을 찾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대림2동의 한국인 고객의 증가추세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조선족 대상 음식점들의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인 고객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지역의 변화(부동산 가치상승)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의 형성과 관련한 지역의 변화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 중 하나는 부동산 가치상승이다.[14]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환경의 노후로 주거와 상업에 대한 지역적 활기가 낮아진 지역에 조선족들의 밀집으로 인한 부밍(booming)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밀집지를 형성하면서 기존에 소외된 지역에 입지하고, 해당지역에 밀도가 높은 주거수요를 발생시킨다. 또한 상업활동에 있어서도 소비가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용이 가능하다.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 낙후지역의 집주인들에게 조선족(재한 중국동포)은 반가운 존재다. 내국인들에 외

14) 단, 가리봉동의 경우 재개발이슈가 작용하여 조선족 밀집지와 관계성을 알기 어렵다.

면받는 낡은 주택을 조선족들이 채우면서, 저가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밀집한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광진구 건대입구 등지는 상권도 함께 발달하며 매년 가게 임대료와 권리금이 상승하는 추세다."(헤럴드경제, 2012)

부동산 114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대림동과 자양동의 상가 매매가격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매일경제, 2011). 대림동의 경우 상가매매가격은 3.3㎡당 1771만원에서 1973만원으로 약 11.4% 상승했으며, 자양동의 경우 983만원에서 1206만원까지 높아져 약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상가매매가격의 평균변동률이 7.9%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가 매매가격의 상승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조선족 밀집지에서 상업지역 활성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1.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차이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지는 초기 주거밀집지로부터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상업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업지역은 주류사회와

〈표 5〉 조선족 밀집지 특성차이 비교

특성구분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
주거밀집지	입지요인		일자리 접근성 / 저렴한 주거		
			구로, 강남, 안산 / 쪽방	강남 / 반지하, 옥탑	강남,성수 / 반지하, 옥탑
	거주자 성격차이		최초정착지, 단기, 단신	가리봉동에서 확장	2차 정착지, 적응계층, 가족
	조선족 수		6,111명	7,176명	2,936명
	(인구밀도)		30.0%	28.2%	10.2%
	조선족 주거분포		집중/ 한국인과 분리	한국인과 혼재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	조선족 중심 상업시설 수		150개	304개	66개
	/조선족 100명(음식점)		2.5개 (1.2개)	4.2개 (2.1개)	2.3개 (1.4개)
	업종구성(음식점 외)		유흥 발달	직업소개소 및 행정 발달	음식점 중심
	상업시설 분포	상업가로 (위치)	조선족 상점 위주 (우마길)	조선족, 한국인 상점혼재 (전역에 산재)	조선족 상점 위주 (동일로18길)
		재래시장 (위치)	조선족 중심 (가리봉시장)	한국+조선족 혼합 (대림중앙시장)	한국 중심 (노룬산골목시장)
	상업지역 성장패턴		2005년 이후 정체 및 쇠퇴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	'양꼬치 거리' 조성 후 성장
			양적 성장 후 쇠퇴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조선족 중심 상점 운영주체		조선족(중국국적 또는 한국국적 귀화)		
	조선족 중심 상점 자본형성		이주노동을 통한 개인적 자본축적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마련		
	고객구성		조선족 중심		한국인 중심
			한국고객 거의 없음	한국고객 증가 추세	조선족 중심 성장 후 주고객 전환
	지역변화(부동산 변화)		저렴 임대주거 수요 발생 / 상가임대료 및 매매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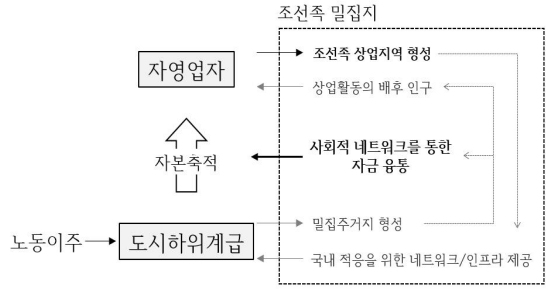
* 공통적 특성

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조선족 밀집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요소들로 인해 밀집지의 성장과 소통의 가능성은 각각 차별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조선족 중심의 상업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조선족 주거 인구는 상업지역을 지탱하는 배후인구로 작용하며, 밀도나 분포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성장속도와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상업시설의 입지 및 배치형태, 이용객구성 등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차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은 성장단계에 있어서 대림2동과 자양4동은 성장, 가리봉동은 정체 및 쇠퇴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양4동의 경우 질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발전적인 지역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대림2동의 경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성공사례들이 등장하면서 현재 질적인 변화를 일부 경험하고 있다. 반면, 가리봉동의 경우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심리적으로 제한되고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를 경험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슬럼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각 조선족 중심 상업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차이들과 대조적으로, 운영주체와 상업시설을 개업하기 위한 자본형성과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조선족 밀집지에서 조선족에 의한 음식점 등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의 등장과 그 배경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성장과정의 차이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지역적 조건, 도시계획과 같은 외부적 조건, '양꼬치 거리' 조성과 같은 사회적 조건 등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업종구성, 고객구성과 같은 성격의 차이와 상업지역의 성장, 쇠퇴 등의 차이를 야기한다.

특히, 조선족 밀집지의 성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음식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조선족 밀집지 내 조선족 음식점은 밀도 있는 조선족 배후 인구를 가진 상태에서, 한국인과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실패확률이 낮은 사업이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그 운영주체들인 조선족들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였던 이들이 밀집지 내에서 자영업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밀집지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음식점'은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 중 한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거의 유일한 것으로 주류사회 한국인과 조선족 밀집지 사이의 접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 밀집지가 이색적 상업지역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림 6〉 조선족 음식점 개업과 조선족 밀집지의 관계

2. 정책적 시사점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 및 성장과정을 통해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 재생과 같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슬럼화, 게토화 우려가 있는 가리봉동의 사례와 같이 모든 밀집지에

서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조선족 밀집지의 성장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요소, 도시 계획적 요소, 사회적 요소 등 복합적인 외부요인이 조선족 밀집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조선족 밀집지가 가진 긍정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리봉동의 경우, 재개발 이슈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감소시키고 지역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가시켰으며, 기존 도시조직의 문제가 더해져 조선족과 한국인의 공간적 분리가 고착화되는 등 외부적 요인이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였다(박세훈・이영아, 2010). 때문에 서남권 최대 패션리테일 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패션타운과 대규모 오피스밀집지역으로서 외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등이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색적인 문화거리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족 밀집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대처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도시・경제・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채 조선족 밀집지가 입지한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에 철거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조선족 밀집지가 가진 가능성을 상실함과 더불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족 밀집지가 가진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 재생의 역할과 문화적, 사회적 측면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발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이 바탕이 되어 가리봉동에서와 같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선족 밀집지의 문제에 대처하고, 조선족 밀집지의 긍정적인 역할이 발현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남기범・유환종・홍인욱(역), 1998,「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서울: 푸른길(Sassen, Saskia, 1994, *Cities in World Economy*, SAGE Publications)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2009,「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박세훈・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다문화사회연구」3(2): 71~101.

방성훈・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한국사회정책」19(2): 39~68.

윤황・김해란, 2011,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사회지위 연구",「디아스포라연구」5(1): 37~60.

이갑호, 2007.「해외현장기획보고: 선진국 사례로 본 국내의 외국인 집거지 관리・활용방안」, 국가정보원.

이영민,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한국도시지리학회지」5(2): 103~116.

이진영・박우, 2009,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51: 99~119.

이진영・이혜경・김현미, 2008,「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 및 동포 만족도 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적동포팀.

장근수・김현하・임종엽, 2003, "아윤 아파두라이의 scape 개념을 통한 문화의 세계화와 현대건축의 상관관계 고찰",「대한건축학회지」23(1): 465~468.

한성미・임승빈, 2009,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엔벤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한국조경학회지」36(6): 81~90.

매일경제, 2011.9.3., "신상권으로 떠오르는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 점포 매매가 20% 치솟아"

헤럴드경제, 2012.1.13, "서울 낙후지역, 대림·가리봉·건대입구,외국인 수요 늘며 임대시장 및 상권 활성화"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orjas, G. J.,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457~485.

Castles, S. and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UK: Palgrave Macmillan

Faist, T., 2006, "The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f Migrati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remen Center on Migration, Citizenship and Development (COMCAD),* Working paper.

Hall, S. and Datta, A., 2010, "The translocal street: shop signs and local multi-culture along the Walworth Road, south London", *City, Culture and Society*, 1: 69~77.

Hamnett, C., 1994, "Social Polarisation in Global Cities: Theory and Evidence", *Urban Studies*, 31(3): 401~424.

Knox, P. and Pinch, S., 2009,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6th ed, Canada: Pearson Education.

Logan, J. R., Alba, R. D. and Zhang, W.,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299~322.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Pamuk, A., 2004, "Geography of Immigrant Clusters in Global Cities: A Case Study of San Francisc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2): 287~307

Savage, M. and Warde, A.,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London: Mcmillan

원 고 접 수 일 : 2014년 7월 22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8월 18일
2차심사완료일 : 2014년 9월 22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4년 10월 22일